

“국민모두 체육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문재인 대통령, 생활체육시설 확충·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등 청사진 제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큰 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언급했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방안으로 대입 체육 특기자 제도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 간섭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실적인 생활체육 공약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 3.7%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13.7%로 늘었다”면서 “생활체육 현실은 너무 부족하다. 사회인 야구단이 2만 팀인데 전국 야구장은 359개에 불과하다.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 참여율은 집계조차 안 되는 현실이다. 국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을 잡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체육이 제대로 서야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모든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더 늘리고 지원해주는 것이 제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라며 교육 정책과 결합한 체육 공약을 내놨다.

이어 “학생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운동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 개최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개회식에서 지니나멜로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또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역시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2000여 명의 체육인들 앞에서 “체육공약”을 자신의 목소리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출발은 체육농단이었다. 체육계를 비리잡단, 불공정 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공정성을 되찾아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입 체육 특기자 제도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체육단체 자율성도 드높여야 한다.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통합체육회 시도체육단체의 자율성이 탈괄 하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순창군청 정구단 오승규 선수, 국가대표 선발

순창군청 정구단이 창단 5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군에 따르면 8일 대한정구협회 강화위원회에서 순창군청 정구단의 오승규(30)(사진) 선수를 정구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순창 다목적 실내 정구장에서 열린 2017 정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오승규 선수는 개인복식 3위에 올랐다.

오승규 선수는 6월부터 12월 까지 인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합숙훈련을 실시하며 오는 8월 개최되는 코리야컵 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된다.

순창군청 정구단은 2012년 6월 27일 창단해 창단 1년에 대통령기전정구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쥔고, 매년 정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순창군은 초·중·고 실업팀 100여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동호인(화이트볼정구클럽) 또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명문클럽이다. 또한 6월에 순창에서 개최되는 정구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순창

제일고(남여)정구팀 출전하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이양원기자



유벤투스,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번은 없었다. 유벤투스(이탈리아)가 2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

유벤투스는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AS모나코(프랑스)를 2-1로 꺾었다.

지난 4일 원정 1차전에서 2-0으로 이긴 유벤투스는 1,2차전 합계 4-1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유벤투스가 결승에 오르는 것은 2년 만이다. 당시 유벤투스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전 승자와 다음 달 4일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유벤투스는 1996년 이후 2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정상 노린다. 유벤투스는 지난 33년 만에 마리오 만주키치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만주키치는 헤딩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달려들며 원발로 마무리했다.

전반 44분에는 베테랑 수비수 다니엘 알베스의 발리슛까지 나왔다. 알베스는 코너킥에서 공이 뒤로 흐르자 오른발 발리슛으로 AS모나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AS모나코가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는 4골이 필요해졌다. AS모나코는 후반 24분 킬리안 음바페의 골로 따라붙었지만 이미 승부는 기운 뒤였다.

/김민근기자

‘평창올림픽을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평창 조직위 “새 정부, 국민 통합 우선... ‘성공대회’ 가 될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제19대 문재인(64)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을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치러야 할 스포츠계 거사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조직위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평창을

림픽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새 정부에게는 국민 대통합이 우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역대 국내에서 열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평창올림픽이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위는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이 치를 첫 대규모 스포츠 국제 행사라며 “평창올림픽을 토대로 국민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새로운 리더십 속에 평창올림픽이 ‘성공 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서도 대선 후보들은 모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위기가 짙었다.

토마스 바흐(64·독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지난 3월 중순 방한했을 당시 “현재 한국 내 모든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